

비자금→ →쫄쫄 자녀들... 이창석은 연결고리이자 핵심타깃

〈전두환 처남〉

전두환 추징금 수사... 첫 소환 이창석 왜?

전씨 일가 모든 재산형성 과정에 관여한 정황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적용 검토...재국·재용 곧 소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해온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아울러 전씨 일가의 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참고인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창석씨는 이날 오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검찰은 오후 들어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어 조사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기존 '환수팀'도 이날부터 '수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환수와 함께 전씨 일가와 주변 관계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체제로 사실상 전환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온 이창석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재용씨가 운영 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B저축은행이 재용씨 측에 거액을 대출한 과정에서 은행 측의 배임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 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에는 비엘에셋에 거액을 대출해준 B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했다.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의 개발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 지 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원을 빌렸다. B은행은 97억 원 상당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및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점에서 첫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거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 소유의 땅을 재용씨에게 헐값에 팔았으며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경기도 오산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했다.

전씨의 외동딸 효선씨가 이순자씨 소유였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의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도 이창석씨가 관여했다. 이 토지는 이순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해온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2일 오후 외부인의 출입이 끊긴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씨에서 이창석씨를 거쳐 2006년 효선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씨 등 전씨 일가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관련 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

검찰은 이씨에 이어 주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재용씨와 장남 재국씨 등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소환 일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참고인 4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전

씨 일가의 미술품 매매에 관여한 각종 거래 장부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참고인들이 전씨 일가의 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만큼 향후 미술품 거래 자금의 이동 경로와 출처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녹조 엇박자 부적절”

박대통령, 환경부·국토부 공방 질타

“공동 TF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최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부처 간 엇박자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참모들이 참석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적한 뒤 “관련 부처들은 머리를 맞대고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 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 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 부처 차원의 공동 TF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시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하반기 추진 국정과제와 관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하는 개혁 과제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6월말 현재 가사·육아 전담인구가 722만명에 달한다는 통계청 통계를 인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는 현재의 저성장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이고 고용률 70% 달성과 창조경제 실현,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00억 수영센터 재검토 할수도”

강운태 광주시장 “수영대회 예산 1조원 주장은 오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는데 1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 12일 “예기치 않은 오해와 갈등으로 예산 1149억원이 투입되는 대회가 마치 1조원이 들어가는 대회로 둔갑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에 소요되는 8억달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낚은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사업비”라면서 “시가 부담하는 예산사업이 아닌데도 마치 예산이 소요되는 것처럼 알

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만약 그렇다면 2015광주U대회 선수촌 공사(화정주공 아파트 재건축)에 7300억원이 들어가는 데, 8171억원이 투입되는 U대회도 선수촌 사업비를 보태 1조55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회라고 해야하느냐”고 반문한 뒤 “세계수영대회를 저비용 고효율로 유치해놓고도 이러한 오해를 왜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시장은 또 수영훈련센터 건립 비용 1억달러와 관련해서도 “정부 지원을 받거나 민자를 유치해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제수영연맹(FINA)과 협의해 수영훈련센터를 건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처럼 알뜰하게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1조원의 예산이 드는 것처럼 알려져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진실을 알리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다만 “국제 대회 예산은 불가상승 요인과 여러 가지 사정 변경 등으로 대회 유치 당시보다 실제

집행할 때 어느 정도 늘어나기도 해 대구육상선수권대회(2011년 개최)는 애초 예산보다 무려 4배나 더 늘어난 1737억원이 지원됐다”면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대구육상선수권대회보다 규모가 크고 비중이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은 대구육상선수권대회와 비교하면 16%(278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정부와 협상을 해서 앞으로 받아내야할 예산이다. 그런데도 (광주만)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수영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국민 모두가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광주에서 하게 되면 광주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수영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러한 진실을 광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홍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30대 재벌 사외이사 검찰·국세청·공정위 출신 ‘대세’

3대 권력기관 출신 131명
‘방패막이’ 비판속 증가세

국내 주요 재벌그룹에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3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가 1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각 기업은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권력기관 출신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30대그룹 사외이사는 788명으로 작년 6월 말 799명보다 11명 줄었다.

그러나 3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

사는 같은 기간 120명에서 131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다수가 권력기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출신 64명을 비롯해 국세청 출신 45명,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22명이 사외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들 세 기관 출신만 전체 사외이사의 16.6%를 차지해 전년 15.0%보다 비중이 더 커졌다.

검찰 외에 판사(31명)와 변호사(26명) 등 법조계 출신도 수두룩했다.

이는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기준 30대 그룹의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계이다.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권력기관 고위층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삼성그룹은 사외이사 총원이 67명

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많지만 3대 기관 출신은 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 정진호 전 법무부 차관,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그룹은 3대 기관 출신이 23명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많았다.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 전형수·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있다.

SK, CJ, 롯데그룹이 각 10명씩의 3대 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해 현대차그룹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최근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SK그룹에는 한영석 전 법제처장,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사외이사로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무대는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림로입출입관리사무소 입구 02276-0367-9 강남점 강남고속터미널 앞 02347-5110 종로2가점 금강제약 앞 02703-0220 송파점 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선릉점 선릉역 2번 출구 02465-1838 경기 인천점 구 서인회관 앞 02421-2288 부평점 부평역 앞 02617-5110 수원점 남문 앞 031246-5110 의정부점 의정부역 앞 031921-6655 고양점 북삼산점 2001 아울렛 앞 031493-0110-1 별마당골매점 앞 031668-6110 용인점 용인4거리 031036-1000 오산점 국대문점 2층 031676-4183 부안점 새마을시장점 앞 03329-4400 남양주점 남사호점 앞 070829-9303 부산 서면점 서면역 앞 051618-6800 서면점 018-0016 남포동점 남포동점 앞 051256-7200 울산 울산점 울산점 앞 05235-2283 경남 마산점 마산역 앞 05537-6000 전주점 중랑역 앞 0567-46870 대구 동구점 동구4거리 05345-4440 삼척점 삼척4거리 05345-1511 남동점 남동4거리점 앞 05345-7575 경북 포항점 포항역 앞 05444-5110 안동점 구 안동고교4거리 054839-2246 광주 광주점 금남로 47번 사거리 02225-5110 광주점 백운점 앞 02261-4477 전남 순천점 순천역 앞 02222-3388 대전점 대전역 앞 04225-4800 울산 현점 현역 앞 041653-5288 광주점 광주역 앞 052-5110 충북 청주점 청주역 앞 04322-1177-8 충청점 삼일포구 앞 04322-1414 강원 강릉점 죽전2거리 03367-5586 순천점 순천역 앞 03253-5110 제주 제주점 제주역 앞 04733-4266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품 FDA허가 인증

SGS 국제품질 ISO 9001 인증

SGS 국제의료기기 품질 ISO 13485 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GMPC 의료기기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점 (광주) 4대역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점 (광주) 4대역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